

# 고등학교 교사의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간의 관계

장봉석<sup>1</sup>, 김진철<sup>2</sup>

<sup>1</sup>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sup>2</sup>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Teachers' Grit and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Bong Seok Jang<sup>1</sup>, Jin-Cheol Ki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sup>2</sup>Education Inspector, Nation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Ministry of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그릿과 스트레스 대응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의 군집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의 노력 지속성은 도전적 및 정서완화 대응행동에 정적 예측변인이었고, 흥미일관성은 회피적 대응행동에 부적 예측변인이었다. 그리고 높은 그릿과 높은 노력 군집 유형이 낮은 그릿 군집 유형보다 도전적 대응과 정서완화 대응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의 그릿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 그릿,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고등학교 교사, 군집분석, 변량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teachers' gri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stress coping strategies by cluster types of grit. 226 in-service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o took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in the national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severance of effort in grit was the positively independent variable toward task-oriented and emotion-oriented strategies. The avoidance-oriented strategy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consistency of interest in grit. Also, the clusters of high grit and high perseverance of effort in grit showed higher means in task-oriented and emotion-oriented strategies than the cluster of low grit. Finally, research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high school teachers' grit for them to cope with job stress effectively.

**Key Words** : Grit, Stress Coping Strategy, High School Teacher, Cluste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 1. 서론

OECD 49개국 교수·학습 국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원들의 교직만족도는 90% 이상이지만,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18%가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으며 24%는 향후 5년 이내에 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입 및 진로지도에 몰두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높은 실정이다. 적절한 직무스트레스는 개인 및 조직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극심한 직무스트레스 경험은 정신건강의 문제

를 일으키며 누적되면 심리적 소진을 일으킨다[1].

Lazarus와 Folkman(1984)은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초과함으로써 부담감을 갖고, 자신의 안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환경의 관계라고 설명하였다[2]. 동시에 이들은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해도 모두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통제와 변경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감감하려는 시도 등의 노력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Jin-Cheol Kim(jin1789@korea.kr)

Received April 26, 2020

Accepted August 21, 2020

Revised June 8,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직무스트레스 대응은 자신 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직무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다[2]. 이는 구체적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전적 대응, 정서완화 대응, 회피 대응 등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으며[3],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도전적 대응은 대응 노력이 외부행동으로 투여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다. 정서완화 대응은 교사들의 대응 노력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 등 내부로 투입된다. 회피 대응은 직무스트레스 문제를 회피하면서 방어하는 행동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국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한편, 교사 직무스트레스 분야에서 심리적 대응 방법으로 주목받는 그릿( grit)의 개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3]. 그릿은 개인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다[4]. 그릿은 개념적으로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를 포함하며, 단순한 열정뿐만 아니라 난관에 직면해도 이겨내는 자질을 의미한다[4]. 이는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설명되는데, 흥미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은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며, 노력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은 역경에 직면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릿 하위변인의 의미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유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주장되고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의 군집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 때, 그릿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승주와 박주영(2018)은 그릿이 대학생 생활적응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예측변인이라고 논의하였으며[5], 이슬비와 동료들은(2016)은 그릿이 높을수록 회상시점의 부정정서가 감소하고 동일한 부정 피드백이라도 그릿 수준이 높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6]. 또한 그릿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그릿이 낮으면 부정적인 사건들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

트레스 직면 상황에서 그릿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일반고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생산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그릿의 역할을 검증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고 교사들의 그릿의 프로파일적 접근은 그릿이론을 확장하여 이해하는 데도 의의를 갖는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에 대한 그릿은 설명력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교사의 그릿 군집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그릿 이론

그릿은 역경에 처하거나 실패를 경험해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긍정적 심리자원이라고 정의된다[4]. 그릿의 하위변인은 흥미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과 노력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이다. 흥미 일관성은 열정으로 표현되며 자신의 목적과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노력 지속성은 인내로 표현되며 어려움에 직면해도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릿이 높으면 학업성취도 높고 생활적응도도 높았다[7]. 그릿은 숙달지향성,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정서반응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6].

### 2.2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Lazarus와 Folkman(1984)은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을 자신 또는 외부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고 보고[1],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거나 스트레스 근원을 변화하는 문제 중심과 부적인 정서적 고통을 감소하거나 관리하는 정서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하위영역으로써 도전적 대응행동은 적극적, 전략적, 긍정적 대응행동이고, 정서 완화적 대응행동에는 자기격려, 긴장완화, 소망적 사고 등이 포함된다[1]. 회피적 대응행동은 자기비난, 일탈행동, 사회적 지지추구 등으로 구성되었다[1]. 선행연구 분석 결과, 박영재(2003)는 교사들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주로 적극

적 대응행동을 하지만 방어기제나 정서완화 등도 종종 사용하고, 남자가 긴장완화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여자들은 정서 순환 대응행동을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1]. 가재경(2006)은 보직교사가 교사보다 회피적 대응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했다[8].

### 2.3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고등학교 교사의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그릿의 개념 속성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의 대응행동에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이라고 추측된다[4, 7]. 그릿은 성공적 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이다. 그릿은 주관적 안녕과 관계가 있고, 그릿은 소진위험에서도 완충작용으로 정신건강에도 기여한다[9]. 위 연구들을 종합하면, 그릿은 좌절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속성을 포함한다. 예컨대, 일반 고등학교 상황에서 교사의 높은 그릿은 개인의 목표와 욕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배움으로 여김으로서 생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의 그릿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절차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전국 고등학교 교사 대상 연수에서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 조사는 모두 2회에 걸쳐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설문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교사 108명(남자 69명, 여자 39명)이 응답했고, 2차 설문은 2019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118명(남자 73명, 여자 45명)이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226명(남자 142명, 여자 8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이 2회에 걸쳐 실시된 것은 분석에 필요한 샘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 3.2 측정도구

#### 3.1.1 그릿

본 연구에서는 이수란(2014)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작한 Grit 설문조사지를 사용하였다[10]. 하위 영역은 2요인이고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단계 평정 척도이다. 흥미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예: 나의 관심사는 매년 바뀐다.)은 모두 부정문으로 역산 처리했고, 노력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예: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뭐든지 끝낸다.)은 답변 그대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자료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흥미 일관성이 .78, 노력 지속성이 .84이었다.

#### 3.1.2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척도는 교사를 대상으로 적합하게 수정한 가재경(2006)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8]. 하위 영역은 3요인(도전, 회피, 정서완화)이며, Likert식 5단계 평정 척도이다. 도전적 대응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이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다. 대표 문항으로, “문제에 대해 밝은 면을 보려고 한다.”, 회피적 대응행동은 직무스트레스를 직면하면 자기비난이나 일탈행동, 또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다. 대표문항으로 “그 문제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관심을 쏟는다.”, 정서완화 대응행동은 자기격려, 긴장완화 및 소망적 사고를 드러낸다. 예컨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이다[8].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도전적 대응행동이 .85, 회피적 대응행동이 .78, 정서완화 대응행동이 .80이었다.

### 3.3 자료 분석

SPSS 24.0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를 검토했다. 그리고 기술통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그릿의 하위변인인 흥미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과 노력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Wards 분석과 K-means 분석법을 순차 적용했다. 그 후 그릿의 군집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ANOVA) 및 Scheffé 사후검증으로 확인했다.

## 4. 연구결과

### 4.1 측정자료 검토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의 검증 결과,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1 이하로 정규성을 충족하여 자료의 변환은 없었다. Table 1에서 G1은 흥미

일관성, G2는 노력 지속성을 의미한다. S1은 도전적 대응행동, S2는 회피적 대응행동, S3은 정서완화 대응행동을 의미한다.

Table 1. Normality of variables

	Grit		Stress Coping Strategies		
	G1	G2	S1	S2	S3
Skewness	-.950	-.354	.056	.488	-.114
Kurtosis	.960	.516	-.508	-.048	-.008

측정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M), 표준편차(SD)는 다음과 같다. 흥미 일관성보다 노력 지속성이 높고,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은 도전적 대응행동이 가장 높았다. 측정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계수는 .330부터 .608까지 분포되었다. 노력 지속성은 도전적 대응행동과 정서완화 대응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d descriptive analysis

	G1	G2	S1	S2	S3
G1					
G2	-.079				
S1	-.175	.608*			
S2	-.163	-.014	.046		
S3	-.136	.478*	.605**	.330**	
M	3.23	3.94	4.02	3.13	3.59
SD	.67	.55	.45	.43	.46

\*p <.05, \*\*p <.01

#### 4.2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에 대한 그릿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전적 대응행동과 정서완화 대응에 대해서 노력 지속성이 정적 예측변인이었다. 회피 대응은 흥미 일관성이 부적 예측 변인이었다. 즉, 흥미 일관성이 낮을수록 회피 대응행동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V	DV	b	SE	Beta	t	F
G1	S1	-.086	.036	-.128	-2.379	67.584**
G2	S1	.489	.044	.598	11.155**	
G1	S2	-.106	.043	-.165	-2.445*	3.121*
G2	S2	-.021	.053	-.027	-.406	
G1	S3	-.067	.041	-.098	-1.645	33.623**
G2	S3	.392	.050	.470	7.878**	

\*p <.05, \*\*p <.001

#### 4.3 그릿의 군집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차이

그릿의 두 하위 변인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한 후, Wards방법의 기반인 위계적 군집분석과 K-means 분석을 통해 분석한 후 각 군집별 사례를 결정했다. 본 연구 자료는 3개 군집으로 분류할 때 집단 간 차별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그릿(흥미 일관성, 노력 지속성 모두 높음), 낮은 그릿(흥미 일관성, 노력 지속성 모두 낮음), 그리고 노력 지속성이 높은 혼합 유형으로 나타났다.

Table 4. Centroid of type of hope by cluster analysis

Cluster	Group1 High Grit	Group2 High Effort	Group3 Low Grit
G1	4.52	1.98	2.50
G2	4.45	4.48	2.96

#### 4.4 그릿 군집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차이

그릿의 군집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군집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낮은 그릿 군집 유형보다 높은 그릿 유형과 높은 노력 지속성 군집에서 도전적 대응행동과 정서완화 대응행동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4. Mean differences by type of grit

DV	Group	M	SD	F	Scheffé
S1	High Grit(A)	4.38	.35	18.341***	AB>C
	High Effort(B)	4.30	.42		
	Low Grit(C)	3.74	.35		
S2	High Grit(A)	3.28	.45	2.209	
	High Effort(B)	3.05	.59		
	Low Grit(C)	3.15	.38		
S3	High Grit(A)	3.93	.41	9.735***	AB>C
	High Effort(B)	3.78	.44		
	Low Grit(C)	3.35	.42		

\*\*\*p <.001

## 5. 논의

본 연구는 일반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연구 결과는 교사 직무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그릿의 흥미 일관성보다 노력 지속성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임효진(2017)이 지적했듯이, 흥미 일관성 변인이 노력 지속성보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흥미 일관성의 문항들이 모두 부정 진술문에서 기인하는 지에 대한 논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4].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대응은 도전적, 정서완화, 회피적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영재(2003)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초중고 교사들이 적극적 대응행동 외에 방어기제나 정서완화 등도 종종 사용하지만(박영재, 2003) 고등학교 교사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방어기제나 소극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건강하게 대응행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학교급에 따라서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양상과 대응방법도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전적 및 정서완화 대응행동에 대하여 노력 지속성이 정적 예측변인이고, 흥미일관성은 회피적 대응행동에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그릿의 하위변인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심리변인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그릿의 군집유형에서 노력 지속성이 높으면 낮은 유형보다 도전적 대응행동과 정서완화 대응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의 근원을 변화하기 위한 꾸준히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행동을 하게 되거나 직무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부정 정서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피적 대응행동에서는 자기비난, 일탈행동, 타인들에게 지지를 원하는 행동들은 위기극복의 스스로 내면적인 노력과 흥미의 그릿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응행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과 관련하여 그릿의 하위변인 중

흥미유지에 대한 꾸준한 탐색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문항의 개발, 부정 진술문의 혼합, 흥미 구인과의 차별화 등의 세밀한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응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릿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교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관리자는 교사들이 개인목표를 설정하고 열정과 끈기를 가짐으로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도 실패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공동체 문화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의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그릿의 노력 지속성은 도전적 및 정서완화 대응행동에 정적 예측변인이었고, 회피적 대응행동은 흥미 일관성이 부적 예측변인이었다. 그리고 높은 그릿과 높은 노력 군집 유형이 낮은 그릿 군집 유형보다 도전적 대응과 정서완화 대응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에 대하여 그릿 이론의 설명력은 유의미하였으므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에서 교사의 그릿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REFERENCES

- [1] Y. Park. (2003). *Teacher's Job Stress Level and Coping Method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2] R. S. Lazaru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3] L. Kim & Y. Hong. (2013).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Stress on Professional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Childcare Policy*, 7(2), 263-282.
- [4] H. Lim.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2), 169-192.

- [5] S. Lee & J.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69-276.
- [6] S. Lee, Y. Bea, Y. Son, & S. Lee. (2016). Grit as a Buffer against Negative Feedback : The Effect of Grit on Emotional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Psychology*, 30(3), 25-45.
- [7] Y. Yoo. (2015). A Relationship among Grit, Objective Reaso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of High-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367-385.
- [8] J. Ga. (2006). *(A) Study on Stress Acceptance Level and Problem Solving Method with an Elementary School Professional Counselor-teacher Certificate*.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9] I. Hy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Novice counselor's GRIT and Burnout: The Mediation Effects of Mindfulnes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10] S. Lee. (2016).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장봉석(Bong Seok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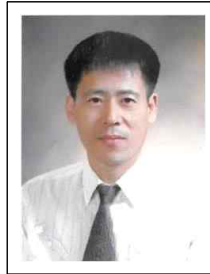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2006년 8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8월 : 미국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과정학과(교육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 실행
- E-Mail : bsjang@mokpo.ac.kr

김진철(Jin-Cheol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5년 9월 ~ 현재 : 중등교사, 교감, 장학관, 교육부 교육연구관

- 관심분야 : 교육심리, 교육과정, 인지심리
- E-Mail : jin1789@korea.kr